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성황산 소나무
방제 작업 실시

정읍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성황산 등산로 일원 14km를 두 차례에 걸쳐 방제한다.

방제 구간은 성황산 등산로 약 3.3km다. 소나무 수관에 약제를 직접 살포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 성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정읍국유림관리소와 공동방제 협약을 체결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인 유니목의 고압호스를 활용해 약제를 분사할 계획이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차 작업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2차 작업은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방제 작업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일부 등산로 출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시는 주요 출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기간 운영

부안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0호에 대해 5일부터 24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특성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안군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 · 공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깨끗한 산림 만들기 박차

‘산림환경 100일 클린-케어 프로젝트’ 추진…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산림환경 정비 등

부안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환경 100일 클린-케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산림 환경 정비를 병행해 군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산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계곡, 산림휴양지, 임도 및 산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산림환경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한다.

특히 산림 계곡 불법행위 상습·반복지역, 임도와 산림 주변에 불법투기 및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해 계도 및 정화활동을 병행해 군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무허가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 자재 등의 무단 적치,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 무단투기, 산림 내 불법취사 및 화기 사용, 기타 산림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3년(2024년~2026년 상반기) 동안 산림 불법행위 25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도 산림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화기 사용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폭염 · 가뭄에 긴급 현장 점검

조산저수지 · 아산면 일원 찾아… 가뭄 대책 추진 상황 점검 · 피해 최소화 총력 당부 등

심덕섭 고창군수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및 생활용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 현장 점검에 나섰다.

4일 아침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수면 조산저수지와 아산면 일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심 군수는 하천 굴착 현장과 농경지 상황을 둘러보고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고창지역 누적 강수량은 580mm로 평년(695.7mm)의 8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 내 35개 저수지의 저수율 역시 49.4%로 평년 70% 수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고창군은 농작물 생육 지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가동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 함께 저수율이 급감한 저수지 준설을 완료하고, 읍면에서는 관리중인 관정, 양수펌



프 등을 점검하여 심해지는 가뭄에 준비하고 있다.

고창군은 저수 현황을 점검하고, 저수율 단계별 대응 방안에 맞춰 보조취수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가동한다.

아울러 2026년도부터 폭염 예방을 위한 시설하우스 내부 순환팬, 외부 미스트, 차광도포제를 지원하는 기후변

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까지 추가되어 여름철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점검 실시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형심)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부안읍내 및 관공지 주변 학교(13개교)를 대상으로 제외하고, 현장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 성인 PC방, 축사 등 유해시설의 설치 여부, GIS 시스템과 실제 현장 간 불일치하는 사항(학교 출입문 위치, 학교 경계선 등)을 현행화해 학생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안교육지원청이 2025년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교육

환경보호제도 운영성과 공유회’에서 전북교육청이 전국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문형심 교육장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평가서 ‘장관 표창’

시 단위 상위 6개 지자체 선정…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성과

정읍시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시 단위 상위 6개 지자체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점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시는 5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다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이번 장관 표창까지 더하면서 일회성 실적이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성과를 입증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운영과 우수사례 창출, 공직문화 개선, 시민체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

시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지침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 운영과 사전상담 활성화,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홍보, 실적점수 제도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공직자가 법적·절차적 부담을 덜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했다.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직 전체로 확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적극행정 유공포상까지 수상하면서 적극행정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확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금은 공정하게, 위기가구는 따뜻하게’

정읍시 체납관리단 출범

정읍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직접 찾아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와 가정 방문, 납부 독려, 전화 상담, 각종 안내문 전달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 일률적인 징수보다 상담을 우선할 방침이다. 분



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온열질환예방 대책 강화

고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선운산농협과 대성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감온도계와 온열질환 예방 식품, 수방식조끼를 추가 지급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체감온도계’를 활용해 작업현장의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폭염 상황에 맞춰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감온도계 보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례로는 전국에서 드문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고창군은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3,4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군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펄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쉼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쉼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쉼니어는 펄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



전주매일 캠페인